

교회문제연구  
제4집 (1985. 12)  
P.P. 154 ~ 164

## Conelius Jaarsma *Human Development*

김 용 섭  
(고신대 부교수)

### I. 著者 및 著者の立場

本書의 著者 Cornelius Jaarsma는 美國의 著名한 改革主義 教育理論家中의 한 사람이다. 그는 New Jersey주에서 高等學校 校長職을 맡은 것을 비롯 Slippery Rock 州立大學의 教育學部長과 Wheaton 大學의 哲學教授職을 거쳐 1948年以後에는 Calvin大學의 教育學教授를 역임했으며 몇 해 전 서거하기까지 教育學界에서 聖經에 입각한 健全한 思想을 심는데 크게 공헌한 Calvin主義學者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基督教的立場에 서서, 특히 Calvinism의立場에 서서 教育(學)의 諸問題에 對해 体系的인 理論을 展開한 學者가 極히 稀少한 것이 美國의 教育學界이다. 특히 物質文明

이 極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進步主義教育哲學이 거의 모든 教育界와 教育學界를支配하고, 個人主義, 功利主義가 雖然한 美國의一般世俗文化의 風土 속에서 基督教教育(學)의 領域에 있어서 까지도 實用主義, 合理主義의 倾向이 威勢를 떨치는 狀況下에서 著者は 始終一貫하여 聖經이 提示하는 基本立場에 서서 教育의 本質이나 目的 等 基本概念의 側面과 教育의 핵심문제인 人間論을 비롯해서 커리큘럼이나 教授—學習等 教育의 内容과 方法論까지에 이르는 거의 全領域에 걸쳐 바른 哲學的原理를 정립하려고 모색하고 있다.

Jaarsma는 Calvin主義의 立場에서 教育의 一般概念에 哲學的根據를 牢固히 했고, 특히 方法論的

側面에서 世俗教育에 뒤떨어짐을 면치 못하는 基督教教育에 聖經原理에 立脚한 教授—學習理論을導入함으로써 基督教教育의 方法論의 局面에 心理學的 바탕을 다지는데 寄與하였다. 뿐만 아니라 Jaarsma는 在來의 世俗心理學의 骨格을 토대로 하면서도 이의 傳統的 줄례를 벗어나 聖經의 照明下에서 獨特한 Personality 概念을 展開했고 또 이에 相應하는 人間論을 定立함으로써 教育學全般(基督教教育을 포함하여)에 바른 哲學的 基礎를 다지는데 크게 功獻하였다.

### II. 本書의 構造 및 内容概要

本書는 위에서 論議한 Jaarsma의 教育思想中 教育의 主體인 人間에 對한 理解에 關係되는 Personality의 形成과 發達 및 教育의 方法的 個人面인 學習(learning)과 教授(teaching)를 다루고 있다. 本書는 그 副題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al Psychology"가 보여 주듯이 教育心理學(의 主要領域)에 對해 基督教

情緒的發達, 社會的發達 및 知的發達에 對해 論했고, 3部 How The Child Learns에서는 學習의 原理와 過程 等 學習의 基本概念에 對해 論考하고 여러 學習理論들을 分類하고 이에 對한 說明을 加하고 있다. 著者에 依해 分類된 學習理論은 “條件形成理論” (The Conditioning Theory) 과 “試行錯誤說” (Trial-and-Error) 과 “場理論” (Field Theory) 과 “推理, 創意的表現說” (Reasoning and Creative Expression) 等이며 著者は 여기에 첨가하여 基督教의 人觀點에서의 自身의 學習說을 펼치고 있는 바 이는 本書의 特色中 하나 할 수 있다. 4部 What Is Teaching에서는 學習을 可能케 하는 教師의 地位, 役割과 그의 主導的機能인 Teaching의 本質 및 効率振作 等에 對해 論議되고 있다. 本書에서 著者は 傳統의 人世俗 教育心理學의 데두리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 해서 이에 全的으로 얹매어 있지도 않음을 볼수 있다. 오히려 著者は 世俗 教育心理學의 傳統의 人限界

를 벗어나 聖經의 立場에서 獨自의으로 問題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始終一貫해서 著者が 本書에서 試圖하고 있는 것은 單純한 生物學의 實體로서의 하나의 有機體에 不過한 것으로, 그리하여 다른 動物들과 本質의 差異가 別로 없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는 進化論의 人間觀의 假定에서 이루어진 現代 教育心理學과 그리고 이의 諸 學習理論에 聖經에 立脚한 새로운 原理를 導入하여 하나의 基督教教育心理學, 基督教 學習理論의 土台를 마련하려 한 點이라 할 수 있다.

Jaarsma(의 教育理論)에 依해 成就된 業蹟中 가장 括目할 만한 것은 그가 教育(學)의 거의 全領域, 特히 教育心理學 分野에 基督教(改革主義)의 原理를 가지고 接近을 試圖한 點에 있다 할 수 있다. 特히 本書는 基督教信仰(改革信仰은 고사하고)의 原理에 立脚한 教育心理學의 研究가 거의 不毛의 狀態인 美國의 文化的 風土 속에서 聖經原理에 따라서 問題들을 取扱한 英語로 刊行된 最初의

体系化된 基督教教育心理學을 誕生시킨 역사적 의미를 갖는 著作인 것이다.

### III. 本書等에 나타난 Jaarsma의 教育觀

Jaarsma는 Calvinist로서 어떠한 教育觀을 가지고 있는가? Jaarsma는 本書와 아울러 그가 쓴 다른 著書들에서 自身의 教育思想을 펼치고 있다. 그는 많은 著書들을 남기지 않았다.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ck*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35, 鄭正淑譯),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1953) 및 本書가 Jaarsma에 依해 刊行된 冊들인데 *Fundamentals*는 그가 편찬한 改革主義學者들의 論文集인바 이中相當部分이 그의 것이다. 이밖에 多數의 論文이 있고, 特히 *Fundamentals*에 실린 그의 論文 “Teaching According to the Ways of Child Life”는 아주 明快하고 치밀한 筆致로 되어 있는

바 本論文의 卓越한 論調는 本書와 함께 그의 教育思想을 理解하는데 반드시 消化해야 할 것으로 여겨 讀者들에게 一讀을 勸하는 바이다.

이제 本書를 中心으로 해서 위 論文 等에 나타난 著者의 教育思想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筆者에게 割愛된 紙面關係로 本書의 內容全部를 살피지 못하고 그의 人間觀과 이를 바탕으로한 教育에 對한 基本概念이 펼쳐진 部分만을 다루게 됨을 遺憾으로 여기면서 讀者들의 諒解를 求하는 바이다.

#### III-1. 教育觀의 基礎로서의 人間觀

Jaarsma의 教育理論은 그의 人間觀, 即. Personality theory를 土台로 해서 展開되고 있다. 그런데 그의 Anthropology는 根本的으로 人間存在에 對한 그의 二元論의 假定위에 세워져 있다 할 수 있다. 그는 “...the self manifests itself in two distinguishable but not separable ways. It manifests itself psychically, in the soul life, and physiologic-

ally, in the life of body.”<sup>1)</sup>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留意해야 할 것은 그의人間論이二元論은 아니라는事實이다.各己特異한 이들人間存在의 두局面(psychical and Physiological aspects of human existence)은 서로分離할 수 없는要素들로서 이들은 Personality란 하나의實體 속에統合되어 언제나 全體로서有機의으로生에作用한다. Jaarsma에依하면 Personality는個人의 Pneuma와 Psyche와 soma를 그속에包含하고 있고, 그것을通해個人이多樣한次元에서社會的으로表現되는 가장包括的인人間의實體概念이다.<sup>2)</sup>人間의person을構成하고 있는 이들Pneuma(spirit)와 Psyche(soul)와soma(body)는單一個人안에 있는別個의要素들로서 이들은 서로區別될 수 있는 것들이면서, 同時に하나의全人(Whole Person)을形成하는, 그리고全人속에하나로統合되어 있는有機的全體(organic whole or totality)인 것이다.思考하고(thinking), 느끼고(feeling),意志를세우고(wi-

lling),知覺하는(perceiving)等의精神的活動과機能으로表現되는psyche(soul)나여러가지相異한身體的構造特徵과機能으로表現되는soma(body)나그리고psyche나soma를자닌人間存在自体를보다根源적으로規定하고그機能을統制하는pneuma를網羅한要素들과이들의表現으로서의固有한存在特性과行爲特性을지니고있는personality<sup>3)</sup>는하나의抽象的概念이나觀急的虛像이아니라人間의現實的生全般에作用하는 가장具体的인存在concept이요, 나아가서는하나의whole person이營爲하는生의各斷面에特有하고도具体的인樣相으로表現되는行動의總體인것이다. 이러한意味에서Jaarsma에있어서의personality는“whole-person-in-life”요,“whole-person-in-action”<sup>4)</sup>인것이다.

Personality theory의展開에있어서Jaarsma는그가살고있는美國의心理學의一般的傾向에執着하고있는것처럼보이면서이에全的으로얽매이지않고있음을본다.이는人間을하나님

의形像대로지음받은存在로보는基督教信仰原理와基督教的人間觀의大命題에서出發하는그의Anthropology의立場에있어서는當然한歸結이라하겠다.

Jaarsma의Personalitytheory가一般心理學의그것과 다른點은Personality의形成要因에對한그의見解에서이다.人間의發達을規定하고그Personality形成에決定的으로作用하는要因으로遺傳과環境이舉論되고있음은周知의事實이다.그러나Jaarsma는傳統의心理學이말하는이두要因에또하나의要因으로spirit를追加한다.그에依하면人間(person)은遺傳의要因과環境의要因의作用에依해形成되어(being formed)지기도하지만,또한自我(the self, the spirit)가스스로를形成하기(the I—the self or spirit—forms himself)도한다고한다. Jaarsma는spirit를하나님의形像을자닌者(God's image-bearer)로서의人間(the self or the I)存在的核心이요,本質로본다.Ja-

arsma에있어서spirit는人間의生그자체에對한說明이되는person의本質이요,精神(psyche—soul)의,肉体(soma—body)의要因을規定하고統制하며이들을有機的으로統合시켜하나의單一体로形成하는근원적힘인것이다.<sup>5)</sup>人間의personality는單只遺傳의要因과環境의영향에依해서만形成되어지는것이아니라人間存在의核心的本質이요,根源的인힘인spirit가스스로形成해가는것이기도하다.우리는여기서人間存在의兩面性을본다.即그것은遺傳의要因과環境의要因에依해規定되는精神的,身體的實體Psycho-soonatie entity)와이實體의表現인行爲主体로서의外的自我, 다른하나는Psychosomatic entity로서의人間存在그자체의根源이요,生의原動力이되는內的自我이다.이內的自我인spirit야말로하나님의創造의眞理관인人間을人間되게하는本質인바Dooyeweerd를비롯한基督教哲學者들이일컬는바人間의heart요,하나님의形像이

座定하는 곳이요<sup>6</sup> 우리 實存의 宗教的 核이요 온 現實 世界의 集中點(the religious core of our existence and the concentration point of the entire temporal world)<sup>7</sup> 인 것이다. Jaarsma 의 다음 말은 吟味되는바 크다. The spirit, the breath of God, is the explanation of all functions, psychic and physiological. The life of man is the life of the spirit.<sup>8</sup>

精神—心理的 要素와 身体的 要素들의 有機的 統一体요, 全人으로서의 person인 人間存在의 核의 本質을 Jaarsma는 人間의 宗教性에서 찾는다. 神學者들과 基督教哲學者들이 一般的으로 그렇듯이 Jarringsma는 그의 Anthropology를 하나님의 被造物로서의 人間의 神形像性을 토대로 해서 展開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形像(을 지닌者)에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宗教的 實存인 人間의 存在特性을 그는 合理性과 道德性과 社會性과 自由性과 責任性에서 追述한다.<sup>9</sup> 人間은 스스로(그 heart로) 하나님께 順從하여 그에게 向

해 나가갈수(turn toward God)도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로부터 떠나갈수 (turn away from God)도 있다. 그리고 人間은 그리스도의 救贖의 思寵과 성령의 不斷한 感化와 引導로 참된 生을 누릴수 있는 存在이다. 人間은 하나님과의 關係(肯定的 關係이든 또는 否定的 關係이든)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宗教的 實存으로서 참과 거짓을思考, 推理, 判斷하여 어여한 知識을 가질수 있는 能力(rationality)을 賦與받았고, 이 判斷과 分別力에 따라 바른行動을 하여(morality), 이웃과 바른 關係를 維持하고 살수 있고(sociality), 하나님 앞에서自身的 運命과 行為를 스스로 選擇, 決定할수 있고(freedom), 이에 對해 하나님과 이웃에 對해 責任을 지는(responsibility) 人格體(person or personality)인 것이다. 教育의 窮局의 本質과 目的是 이러한 人間(person or personality)을 形成함에 있다. 그리고 教育이 實現코자 志向하는 person (personality)은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諸要素들(psychosomatic factors)과

이들의 機能作用들이 잘 統合되고 (well-integrated), 잘 規制되고 (well-regulated), 잘 調和되어 (well-ordered or balanced), 이들이 하나의 全人으로서 그 固有한 合理性과 道德性과 社會性과 自由性과 責任性에 따라 하나님과 人間과 自然世界와 바른 關係를 維持하면서 참되게 살 수 있는 온전한 person(personality)이다.

### III - 2. 教育의 基本概念

Personality theory와 이 theory와의 密接한 關連下에서 펼쳐진 anthropology는 Jaarsma의 教育理論의 核이요, 後者は 前者에 立脚해서 展開되고 있다. Jaarsma는 教育을 未成熟者를 成熟한 Personality로 形成해 가는 過程으로 解釋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Education is the process by which a person is formed and forms himself according to the Truth."<sup>10</sup> "Education is a Process in which the whole person proceeds immat from immaturity to maturity."<sup>11</sup> Jaarsma에 依하면 教育의 目的是 Person-ability를 形成하는데 있다(The aim of education is to form personality.)<sup>12</sup>

Personality 形成, 即, 教育은 두 가지 要因에 依해 이루어 진다. 그 하나는 兒童이 本來 태고난 内面性의 自然的 發現의 側面이고, 다른 하나는 外部에서 意圖的으로 加해지는 形成作用의 側面이다. Jaarsma에 依하면 兒童은 本來 하나의 内的 衝動性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는 이를 가리켜 developmental urge라고 일컫는다.<sup>13</sup> 하나님의 形像으로 지음을 받아 살아 움직이는 實存인 人間은 固有한 生得的 動機(indigenous and in-born motisation)를 가지고 있는바 이 動機에 依해서 사람은 스스로를 實現해 간다고 한다.<sup>14</sup> 그런데 Jaarsma는 兒童이 本來 태고난 發達衝動 或은 發達動機를 spirit와 同一視하고 있다.<sup>15</sup> 그의 다음 말들은 그가 spirit를 developmental urge와 同一視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示唆이다. "The spirit as a life principle impels the organic whole to maturity."<sup>16</sup> "God endows the I, or

spirit, with a potential for self-development according to the call. He places upon a person in life. In His inscrutable wisdom He equips the spirit with a psycho-somatic structure of corresponding potential.”<sup>17</sup>

Developmental urge 이전 또는 spirit 이전간에 우리는 Jaarsma의 이러한 教育思想에서 Rousseau의 인 開發說(unfoldment theory) 과 Dewey의 教育觀과의 類似點 을 볼 수 있는 同時에 그가 美國이라고 하는 文化的 風土에 젖어 있으면서 美國心理學의 一般的인 影響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Rousseau나 Dewey와는 달리 Jaarsma는 童兒의 固有한 生得的 動機의 自然的 發現과 아울러 外部로 부터 加해지는 意圖의 形成作用(formative function)의 必要性도 決코 看過치 않는다. 改革主義教育學者로서의 Jaarsma의 教育觀이 보다 더 強調하는 것은 後者임이 分明하다. 그의 이러한 立場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다. “Though he(the child) may give ear-

ly indications of future development, it is largely through education that a child's personality is formed.”<sup>18</sup>

Personality 形成過程 이 教育에서 意圖의으로 加해지는 外的 形成作用의 重要性이 強調되는 Jaarsma의 教育理論体系에서 教育의 方法論, 特히 教授—學習 理論은 外的形成作用의 効率振作이라고 하는 側面에서 볼 때 그 比重이 簡게 吟味되는 바이다(이 領域을 다루고 있는 本書의 部分에 對해 言及치 못함을 遺憾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그리하여 効率的 形成作用(教育)에 依해 形成된 personality의 理想은 統合性(integration)과 規制性(regulation or orderliness)과 均衡性(balance)을 갖춘 그리스도와 같은 完全性(Christlike Perfection)를 達成하는데 있다. Jaarsma는 教育의 目的에 對해 이렇게 말한다: The end of education... is a world of men and women sound in body and mind, beautiful and reserved, devoted to the task of becoming perfect followers of God.<sup>19</sup>

그는 또 被教育者에게 “the largert attainable measure of Perfection”을 成就하는 것이 教育의 궁극적 目的이라고 附言하면

서 이렇게 宣言한다:  
Education is immoral if it does not help us to achieve this end.<sup>20</sup>

1.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p. 23
2. *Ibid.*, “Personality is obivously the most inclusiwe concept that we may apply to an individual. Within its scope fall not only what we have called *Pneuma, Psyche and Soma*, but also the savior& dimensions of the person's social expression.” p. 23
3. Personality의 一般概念에 對해서는 拙稿 “Personality의 本質,” 高神大論文集 第五輯, p. 41~68을 참고할 것.
4. *Human Development, Tearning and Teaching*, p. 50
5. Jaarsma, 1953, “Teaching According to the Ways of Child Life,”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p. 302 : “The I or subject C Pneuma (Pneuma=spirit) is the person who is the explanation of the very life of man. The I (spirit) is placed in organic unity with the Psycho-somatic (the soul life of man insolved in body processes, neural, Chemical, etc.) by God.”
6. Calvin, 1967, *Institutes of Chistion Religion*, edited by J. T. McNeil, translated by F. L. Battles, Phila., Westminster Press, Vol. I, p. 188
7. Dooyeweerd, 1972,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Nutley, New Fersey, The Craig Press, p. 187
8. Jaarsma, 1961,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p. 42
9. Jaassma, 1953, “Teaching Accosding to the Ways of Child Life,”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p. 303~304
10. Jaassma, 1961, *Human Development, T esning and Teaching*, p. 73
11. *Ibid.*, p. 58
12. *Ibid.*, p. 52
13. *Ibid.*, p. 72
14. *Ibid.*
15. *Ibid.*, p. 55, “... and the Spirit is the life principle involved in the psycho-somatic. The spinit acts in the self-conscious Choices and motivations of life.”

16. *Ibid.*, p. 72
17. *Ibid.*, p. 80
18. *Ibid.*, cf. p. 58
19. Jaarsma, 1953, "Social Airm in Christian Education," *Fundamentals in Christian Edceation*, p. 186
20. *Ibid.*, p. 186~187

교회문제연구  
제4집 (1985. 12)  
P.P. 165 ~ 183

J. B. Rogers

##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이 환 봉

(고신대 조교수)

성경의 권위와 본질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신학적 논쟁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토론이 결국은 이 궁극적 권위의 문제를 취급함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성경관은 오늘날 교회내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성경을 둘러싼 논쟁이 19세기동안 사납게 휘몰아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하는 자와 거부하는자의 상반된 두 진영사이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문제는 표현과 신앙에 있어 아주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합중국 연합장로회(UPC, U. S. A.)가 "1967년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기 전에 일어났던 논쟁 속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만 하나의 역

사적 배경을 제공할 뿐인 초기 신앙고백서들중의 한 소장품 정도로서 취급하려고 하였다. 고로 당시에 UPC, U. S. A. 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교리를 이미 떠나려고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J. B. Rogers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자체에 되돌아감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그의 주요한 관심은 가능한 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the Divines)의 성경관을 재발견하여, 그것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 대한 근대적 이해와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Rogers는 이 책을 통하여 Hodge 와 Warfield와 같은 구(舊)-프린스頓 신학교(Old Princeton)